



보도 일시	<전매체> 3. 23.(목) 13:30			-
담당 부서	벤처정책관 투자관리감독과	책임자	과 장	김민지 (044-204-7720)
		담당자	사무관	윤홍민 (044-204-7722)
			주무관	류경린 (044-204-7727)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고용증가율, 전체기업 대비 높아

- '22년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고용은 전체기업(2.4%)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8.1%,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중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고용은 29.8% 증가
 - * 벤처투자 10억원당 고용증가 3.2명
- 특히, 같은 기간 전체기업의 청년 고용이 1.2% 감소한 것과 달리,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청년 고용은 3.6% 성장하여 청년의 사회 진출에 기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2년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 *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이거나,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 ** 고용 : 근로계약(‘상용직’ 또는 ‘임시직’) 체결 및 고용보험 가입

2022년 말 기준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3.3만개사는 전년 대비 8.1%(5.6만명) 늘어난 74.6만 명을 고용하여, 같은 기간 전체기업의 고용규모가 2.4%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해당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중 2022년에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2천개사의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은 전체기업 대비 약 12배 수준인 29.8%(1.9만명)로 나타나, 벤처투자가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 벤처투자 : 중소기업부 소관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투자

< '21년, '22년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고용 현황 >

구 분	전체기업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벤처투자 받은 기업	유니콘기업
'21년	1,455만 33명	68만 9,662명	6만 2,152명	8,059명
'22년	1,489만 8,502명	74만 5,800명	8만 653명	9,906명
증가율	+2.4% (+34만 8,469명)	+8.1% (+5만 6,138명)	+29.8% (+1만 8,501명)	+22.9% (+1,847명)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비상장기업) 15개사의 '22년도 고용은 약 9천명으로, 전년 대비 22.9%(1.8천명, 기업당 약 1백명) 증가하였다.

한편, 피고용인의 연령대 및 성별을 고려하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은 청년* 또는 여성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만 15세 이상 ~ 만 29세 이하 : 고용노동부 통계(예시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등)상 연령구분 기준을 참고하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나이로 설정

2022년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청년 고용은 19.8만명으로 전년 대비 3.6%(6.8천명) 늘어났다. 청년 인구감소*, 사회진출 연령대 상승, 신규채용 축소 등에 따라 전체기업의 청년 고용이 1.2% 줄어든 것과 달리 증가세를 보였다.

* 청년 인구(만명, 행정안전부) : ('21) 900.1 → ('22) 876.2 (△2.7%)
그 외 인구 : ('21) 4,263.8 → ('22) 4,267.7 (+0.1%)

같은 기간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여성 고용은 24.3만명으로 10.0%(2.2만명) 증가하면서 전체기업의 여성 고용증가율(2.9%)을 큰 폭으로 상회하였다.

< '21년, '22년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청년·여성 고용 현황 >

구 분	청년 고용		여성 고용	
	전체기업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전체기업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21년	249만 3,751명	19만 782명	639만 2,404명	22만 1,032명
'22년	246만 3,276명	19만 7,582명	658만 91명	24만 3,105명
증가율	△1.2% (△3만 475명)	+3.6% (+6,800명)	+2.9% (+18만 7,687명)	+10.0% (+2만 2,073명)

2022년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고용 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최근 빠르게 성장 중인 콘텐츠 및 디지털 관련 업종의 고용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공연·음반 업종은 드라마, 음악 등 케이(K)-콘텐츠의 세계적 유행으로 최근 주목받는 분야로, 전체 중 가장 높은 15.4%(1,764명)의 고용증가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고용 수요가 증가한 게임(14.9%, +1,820명),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12.3%, +1만 9,177명), 유통·서비스(10.0%, +8,924명) 순이었다.

반면, 제조업 분야의 고용증가율은 약 5% 수준(전기·기계·장비 : 5.8%, 화학·소재 : 5.0%, 정보통신기술(ICT) 제조 : 4.3%)으로, 전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8.1%) 대비 낮았다.

< '22년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업종별 고용 현황 >

(단위 : %, 개사)

구 분	영상·공연·음반	게임	정보통신 기술 (ICT) 서비스	유통·서비스	생명공학 (바이오) 의료	기타	전기·기계·장비	화학·소재	정보통신 기술 (ICT) 제조	전 체
증가율	15.4 (+1,764명)	14.9 (+1,820명)	12.3 (+19,177명)	10.0 (+8,924명)	8.5 (+4,023명)	6.2 (+4,934명)	5.8 (+8,780명)	5.0 (+4,112명)	4.3 (+2,604명)	8.1 (+56,138명)
기업수	563	333	6,779	4,147	1,866	4,550	7,601	4,601	2,605	33,045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중에서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했으며, 투자금액이 높을수록 고용증가 규모도 더 커졌다.

벤처기업 중에서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고용증가율은 전년 대비 16.5%로 다른 유형의 벤처기업 대비 2.5~4배 이상 높았으며, 벤처투자를 많이 유치한 업종*·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고용이 이뤄졌다.

*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투자 1위, 고용 3위), 영상·공연·음반(투자 2위, 고용 1위), 게임(투자 3위, 고용 2위)

** 서울(투자 1위, 고용 1위), 경기(투자 2위, 고용 2위), 대전(투자 3위, 고용 3위)

이영 장관은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른 경기둔화 국면에서도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고용 규모는 전체기업 대비 높은 실적을 기록했고, 청년과 여성의 사회진출에도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으로 벤처투자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이지만, 우리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이 성장자금을 차질없이 공급받아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해당 통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2년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고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분석한 통계로,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힙니다.

참고 1

'22년 벤처·스타트업 중 벤처기업 고용 세부 동향

- **(전체)** 벤처기업(고용정보 유효기업 3만 2,685개사) 고용 73만 2,800명
 - 전체 고용 증가율(2.4%) 대비 3배 이상 높은 7.9%(5만 3,759명) 고용증가
- < '22년 벤처기업의 '21년, '22년 전체 고용 현황 >

구 분	'21년 말	'22년 말	증감	증감률	기업당 평균 증가
벤처기업 고용현황 (유효기업 32,685개사)	679,041명	732,800명	+53,759명	+7.9%	+1.6명

- **(청년 / 여성)** 청년, 여성 고용 증가율은 전체 기업 상회
 - (청년) 전체기업 청년 고용은 1.2%(△3만 475명) 감소했으나, 벤처기업 청년 고용은 3.2%(5,930명) 증가한 19만 3,207명
 - (여성) 전체기업 여성 고용은 2.9% 증가(18만 7,687명)한 반면, 벤처기업 여성 고용은 9.6%(2만 906명) 늘어난 23만 7,732명

< '22년 벤처기업의 '21년, '22년 청년 고용 현황 >

구 분	'21년 말	'22년 말	증감	증감률	기업당 평균 증가
고용정보원 전체 청년 피보험자	2,493,751명	2,463,276명	△30,475명	△1.2%	-
벤처기업 고용현황(A)	679,041명	732,800명	+53,759명	+7.9%	+1.6명
청년 고용현황(B)	187,277명	193,207명	+5,930명	+3.2%	+0.2명
비 중 (B/A×100)	27.6%	26.4%	-	-	-

< '22년 벤처기업의 '21년, '22년 여성 고용 현황 >

구 분	'21년 말	'22년 말	증감	증감률	기업당 평균 증가
고용정보원 전체 여성 피보험자	6,392,404명	6,580,091명	+187,687명	+2.9%	-
벤처기업 고용현황(A)	679,041명	732,800명	+53,759명	+7.9%	+1.6명
여성 고용현황(B)	216,826명	237,732명	+20,906명	+9.6%	+0.6명
비 중 (B/A×100)	31.9%	32.4%	-	-	-

□ **(벤처유형)** 고용증가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벤처투자형

○ **벤처투자^{+16.5%}** > **혁신성장^{+6.4%}** > **보증·대출^{+4.6%}** > **연구개발^{+4.1%}**

➔ 벤처투자와 고용 창출 간 양의 상관관계 시현

< '22년 벤처기업의 각 유형별 '21년, '22년 고용 현황 비교 >

구 분	기업 수	'21년 12월말	'22년 12월말	기업당 고용	'21년 대비		
					증 감	증감률	기업당 평균 증가
전체 고용현황	32,685개사	679,041명	732,800명	22.4명	+53,759명	+7.9%	+1.6명
벤처투자형	4,965개사	136,360명	158,843명	32.0명	+22,483명	+16.5%	+4.5명
비 중	15.2%	20.1%	21.7%	-	-	-	-
혁신성장형	19,274개사	385,029명	409,681명	21.3명	+24,652명	+6.4%	+1.3명
비 중	59.0%	56.7%	55.9%	-	-	-	-
보증대출형	2,380개사	34,859명	36,468명	15.3명	+1,609명	+4.6%	+0.7명
비 중	7.3%	5.1%	5.0%	-	-	-	-
연구개발형	6,066개사	122,793명	127,808명	21.1명	+5,015명	+4.1%	+0.8명
비 중	18.5%	18.1%	17.4%	-	-	-	-

- 벤처기업 유형 : ('21.2.12 이전, 유효기간 2년) 보증·대출형, 벤처투자형, 연구개발형
→ ('21.2.12 이후, 유효기간 3년) 혁신성장형, 벤처투자형, 연구개발형
- ① 혁신성장형('21년 신설) :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우수 기업
- ② 벤처투자형 : 벤처투자사 등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 & 자본금 대비 10% 이상 투자받은 기업
- ③ 연구개발형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연구개발비 5,000만원 이상 등
- ④ 보증·대출형(폐지) : 보증·대출 8,000만원 이상 & 기술성 평가 우수 등

참고 2

'22년 벤처투자 받은 기업 고용 세부동향

□ **(전체)** '22년 벤처투자 받은 기업 고용 8만 653명, 전체(2.4%) 대비 12배 이상 높은 29.8%(1만 8,501명) 고용성장

○ 벤처투자 10억원 당 고용증가는 3.2명

< '22년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21년, '22년 전체 고용 현황 >

구 분	'22년 벤처투자금액	고용					
		'21년 말	'22년 말	증감	증감률	기업당 평균 증가	투자 10억원 대비 고용증가
벤처·스타트업 고용현황 (유효기업 33,045개사)	-	689,662명	745,800명	+56,138명	+8.1%	+1.7명	-
벤처투자 받은 기업 고용현황 (유효기업 2,007개사)	57,183억원	62,152명	80,653명	+18,501명	+29.8%	+9.2명	+3.2명

□ **(청년)** 청년 고용은 23.1%(5,365명) 증가한 2만 8,623명

< '22년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21년, '22년 청년 고용 현황 >

구 분	'21년 말	'22년 말	증감	증감률	기업당 평균 증가
고용정보원 전체 청년 피보험자	2,493,751명	2,463,276명	△30,475명	△1.2%	-
투자기업 고용현황(A)	62,152명	80,653명	+18,501명	+29.8%	+9.2명
청년 고용현황(B)	23,258명	28,623명	+5,365명	+23.1%	+2.7명
전체 대비 비중 (B/A×100)	37.4%	35.5%	-	-	-

□ **(여성)** 여성 고용은 31.5%(7,696명) 증가한 3만 2,090명

< '22년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21년, '22년 여성 고용 현황 >

구 분	'21년 말	'22년 말	증감	증감률	기업당 평균 증가
고용정보원 전체 여성 피보험자	6,392,404명	6,580,091명	+187,687명	+2.9%	-
투자기업 고용현황(A)	62,152명	80,653명	+18,501명	+29.8%	+9.2명
여성 고용현황(B)	24,394명	32,090명	+7,696명	+31.5%	+3.8명
전체 대비 비중 (B/A×100)	39.2%	39.8%	-	-	-

□ **(업종)** 고용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ICT 서비스

○ ICT 서비스 ^{+37.0%} > 영상·공연·음반 ^{+36.6%} > 게임 ^{+33.7%}

➔ 디지털·콘텐츠 관련 업종의 고용증가율이 높은 반면, 전통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낮음

< '22년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업종별 고용 현황 >

구 분	기업 수	'22년 벤처투자 금액(A)	고 용				투자 10억원 대비 고용 증가 (=B/(A*0.1))
			'21년 말	'22년 말	'21년 대비		
					증감(B)	증감률	
ICT 서비스	732개사	19,937억원	18,628명	25,526명	+6,898명	+37.0%	+3.5명
영상·공연·음반	137개사	3,437억원	3,015명	4,117명	+1,102명	+36.6%	+3.2명
게임	56개사	1,513억원	1,802명	2,409명	+607명	+33.7%	+4.0명
유통·서비스	412개사	10,984억원	15,489명	20,407명	+4,918명	+31.8%	+4.5명
전기기계장비	134개사	3,696억원	5,721명	7,154명	+1,433명	+25.0%	+3.9명
바이오·의료	257개사	9,421억원	5,997명	7,352명	+1,355명	+22.6%	+1.4명
기타	125개사	2,649억원	4,253명	5,210명	+957명	+22.5%	+3.6명
ICT 제조	78개사	3,091억원	4,578명	5,419명	+841명	+18.4%	+2.7명
화학·소재	76개사	2,455억원	2,669명	3,059명	+390명	+14.6%	+1.6명
합계	2,007개사	57,183억원	62,152명	80,653명	+18,501명	+29.8%	+3.2명

□ **(지역)** 벤처투자 상위 3위 지역(서울, 경기, 대전)은 고용 증감 순위도 동일

※ 서울(3.4조원, +12,409명) > 경기(1.1조원, +2,761명) > 대전(0.4조원, +867명)

< 지역별 '22년 벤처투자 규모 및 고용 증감 현황 >

구 분	벤처투자		고용			순 위			
	금 액	비 중	'21년 12월말	'22년 12월말	증가	투자 규모	고용 증가	투자순위 대비비교	
수 도 권	서 울	33,913억원	59.3%	36,975명	49,384명	+12,409명	1	1	-
	인 천	699억원	1.2%	2,072명	2,304명	+232명	8	8	-
	경 기	10,996억원	19.2%	10,618명	13,379명	+2,761명	2	2	-
	소 계	45,608억원	79.7%	49,665명	65,067명	+15,402명			
5 대 광 역 시	부 산	1,299억원	2.3%	1,183명	1,575명	+392명	4	5	▼1
	대 구	585억원	1.0%	1,237명	1,565명	+328명	12	6	▲6
	광 주	394억원	0.7%	165명	193명	+28명	14	16	▼2
	울 산	701억원	1.2%	652명	775명	+123명	7	12	▼5
	대 전	3,557억원	6.2%	2,690명	3,557명	+867명	3	3	-
	소 계	6,536억원	11.4%	5,927명	7,665명	+1,738명			
지 방	강 원	158억원	0.3%	337명	395명	+58명	16	14	▲2
	충 북	592억원	1.0%	1,394명	1,816명	+422명	10	4	▲6
	충 남	1,122억원	2.0%	1,515명	1,640명	+125명	6	11	▼5
	전 북	587억원	1.0%	572명	723명	+151명	11	10	▲1
	전 남	33억원	0.1%	89명	75명	△14명	17	17	-
	경 북	1,149억원	2.0%	1,108명	1,434명	+326명	5	7	▼2
	경 남	637억원	1.1%	774명	837명	+63명	9	13	▼4
	제 주	451억원	0.8%	347명	526명	+179명	13	9	▲4
	세 종	310억원	0.6%	424명	475명	+51명	15	15	-
	소 계	5,039억원	8.9%	6,560명	7,921명	+1,361명			
합 계	57,183억원	100.0%	62,152명	80,653명	+18,501명				